

# 드림 스토리

청소년인 나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 드림 스토리

청소년인 나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 CONTENTS





1

여는 글

2

지도자&강사 수기

드림인턴십 \_ 편지원  
쿠기인턴십 \_ 한지연  
놀이터인턴십 \_ 박정규  
지역연계인턴십 \_ 허선영

3

드림인턴십 수료  
청소년 수기



4

쿠기인턴십 수료  
청소년 수기



5

놀이터인턴십 수료  
청소년 수기



6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청소년 수기



7

닫는 글

# 여는 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창범 센터장님





한 해가 지나면서 또다시 우리들의 스토리를 엮어가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역량과 바람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꿈을 꾸어가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지만  
누군가 먼저 걸어가고...  
누군가 자취를 남긴...  
또 하나의 내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운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고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드림센터 인턴십에 도전한 용기있는 친구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한발 한발 내딛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포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꿈을 실험해 보면서 체험한 드림센터 인턴십 친구들이 장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의 어려움이 나만 겪는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닌 누군가 겪는 어려움이고 함께 힘을 내어  
이 시간을 견디어 내면 시간이 지나 뒤돌아 볼 때 나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곁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모쪼록 드림센터 인턴십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경험이  
또 다른 많은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깨에 힘을 넣어 봅시다.  
우쭈~ 우쭈~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센터장 이창범



# 지도자&강사 수기



## 드림인턴십



드림센터 커피요정 나야나 - 편지원  
잘 익은 감 - 신정민

## 쿠키인턴십



맛있는, 맛있는 쿠키! - 한지연  
2017년 드림센터 쿠키인턴십을 진행하며... - 양은진

## 놀이터인턴십



놀이터인턴들에게 - 박정규

## 지역연계인턴십



전단지, 배달, 서빙... 청소년 아르바이트? - 허선영

# 드림센터 커피요정 나야나

드림인턴십  
편지원

작년 한 해 인턴십 업무 중에서 놀이터인턴십을 담당했던 제가 2017년 드림인턴십을 담당하게 되면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드림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인턴십 프로그램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바리스타 활동을 메인으로 하는 드림인턴십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니 말이지.

과거에 8년간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하던 저는 물론 하고 있던 일도 좋았지만 커피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이 커서 조금씩 독학으로 바리스타를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 카페 운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카페를 두 군데 운영하며 꿈을 드디어 이루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기쁨으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손님으로 오는 여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소통하고 지내면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웬지 내 지금 생활의 어느 한구석이 허전하고 예전에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던 그때가 그리워지더군요. 어쩌면 내가 막연히 동경했던 직업보다 내가 하던 직업이 나의 꿈에 더 가깝고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다시 청소년과 함께 마주하는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커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잠시 버려줘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림센터에서 청소년지도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드림카페와 드림인턴십 등 커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두 가지 분야 중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직장에서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보거나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신의 취미나 적성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들이 저처럼 방황하지 않고 한 번에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앗~ 너무 제 이야기만 했나요?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드림인턴십은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두 달간은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티밍, 라떼아트, 베리에이션 음료 제조 등 바리스타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매너, 서비스, 노동인권, 경제, 요리 교육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 후 한 달간 드림센터 4층에 있는 드림카페에서 실습을 하며 실제 바리스타 체험을 하게 되며, 추후 카페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생도 그 실습생들 중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카페와 연계하여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해주기도 하지요. 현재 드림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모두 드림인턴십을 수료한 청소년들입니다.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고 실력뿐 아니라 카페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 서비스까지 점점 프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뿌듯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드림인턴십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커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고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커피를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 배워야할지 모르겠고 배울 곳을 찾았다 해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도전해볼 엄두도 나지 않던 아이들, 그리고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

를 얻기 어려웠던 아이들·· 그렇게 모인 아이들에게 제가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담당자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되도록 시행착오를 덜 겪고 힘차게 꿈을 향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커피에 대해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어서 막연히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자기가 내린 커피를 맛보고서는 인상을 찌푸리며 삼키지도 못해 화장실로 달려가 뱉어내기도 하고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며 다시 강의실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지금은 이제는 제법 먹을 만 하다며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고 저에게 맛보라고 권해줍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해보며 맛의 차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관심과 열정이 있었고 실력 향상도 빠르고 때로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상상도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장난기 많고 산만한 아이도 커피를 만들 때 만큼은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오히려 배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나이일 때 나는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무언가 열심히 못했는데 하는 반성까지 하기도 합니다.

3개월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많이 성장합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래는 늘 무기력하고 게을렀는데 인턴십을 하면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부지런해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스스로 돈을 번다는 뿌듯함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첫 만남에서는 대부분 서먹하지만 같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친구들끼리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평소 친구 사귀기 어렵고 혼자 외로웠다는 아이들도 지금은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며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이들 스스로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드림센터는 저와 아이들 모두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여러분의 꿈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예비 바리스타분들! 그리고 커피를 전혀 모르겠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출근길, 길가에 붉게 물든 감을 보았다.

주렁주렁 탐스런 열매를 달고 있는 감나무에 고개가 무심결에 돌아간 것이다.

지난달만해도 작고 앙증스런 초록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벌써 어른 주먹 만하게 된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크고 붉으스름하여 먹음직스러웠다. 감나무를 보니 드림인턴십 첫 수업 시간들이 떠올랐다.

호기심 가득한 순수한 눈빛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첫 수업은 교육하는 나도 언제나 긴장되고 설레는 시간이다. 각 기수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커피가 다양하고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닌 것처럼 배우는 학생들도 개성들이 다르고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인턴십은 세 달 과정이다. 두 달 정도 커피수업이 끝나면 드림카페로 인턴이 되어 나가기 전, 카페와 비슷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작은 평가회를 갖는다. 사실 평가회는 학생들의 수준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카페에서 인턴십을 잘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 볼 수 있다. 카페에서의 일은 바리스타로서 밝고 상냥한 인사성과 정확한 음료 제조, 위생, 정리정돈이 중요하다.

평가회가 끝나고 인턴으로 드림카페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책임감과 성실함, 협동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선배들도 한결 더 적응하기 쉽게 도와주고 있다고 본다.

첫 수업 무렵 학생들이 작은 열매라고 하면 인턴십을 마치고 가는 학생들의 뒷모습은 붉은 감이다.

세 달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익은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학생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며 예전과는 다르게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 달라진 모습을 볼 때 대견하고 기특하다.

아침에 본 감나무의 감이 무더위와 가뭄과 태풍 같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맛있게 익었듯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서 또는 우유 스티밍과 같은 쉽지 않은 일을 하면서 거듭된 실수와 실패를 겪은 학생들이기에 자기만의 풍성한 결실을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드림인턴십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즐겁게 생활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기대해본다.



‘알바X’, ‘알바XX’ 등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를 열심히 찾아봐도 청소년을 우대하는 아르바이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드림센터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쿠키인턴십은 쿠키 기술을 배우는 인턴십으로 2016년부터 드림센터에서 진행 해 온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쿠키인턴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학교 공부보다는 다른 것을 배우고 싶은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을 선발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드림센터 청소년 인턴이 되기 위해 청소년들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양식을 다운 받고 자신의 포부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낸 후 드림센터에 와서 면접을 봅니다. 쉽지 않은 과정으로 청소년 인턴이 선발되는 것입니다. 선발된 인턴들은 2개월간 기술교육, 기술실습, 커뮤니케이션교육, 서비스교육 등을 진행하고 그 후 약 1개월간 인턴십(아르바이트)을 진행합니다. 2개월 교육 기간에는 4가지 쿠키를 만들고 맛봅니다. 협동해서 쿠키를 만들기도 하고 혼자서 쿠키를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이 중 협동 수업을 진행 할 때면 “ 쌤! 저 재량 하기 싫어요!”, “ 쌤!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 등등 아이들의 불만이 많아집니다. 불만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는 협동 수업이 가장 힘든 수업인 듯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협동 수업에서 가장 많이 친해지고 성장합니다. 인턴십 청소년 중 실패나 실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협동 수업에서 다른 친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같은 조 친구가 실수를 하면 불같은 화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었죠. 친구들에게 화를 자주 내다보니 친구들도 “ 쌤 그 친구 무서워요...” 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 아이는 늘 굳은 표정으로 혼자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협동 수업을 거부 해 혼자 작업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혼자서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했고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협동’이라는 것에 대해 배웠고 실패를 덜 무서워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얘기해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었습니다. 저와 면담 때 웃는 모습을 연습 할 정도로 웃음이 없는 아이였기에 밝은 웃음이 더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그 후 아이는 웃음이 더 많아졌고 인턴십이 다 끝나갈 즈음에는 까르르-까르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인턴십을 수료했습니다. 이 웃음을 보며 ‘정말 많이 성장했고,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아이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아이들도 ‘협동’이라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밀가루 혼자서는 맛있는 쿠키가 될 수 없습니다. 짭짤한 소금도 달콤한 설탕도 계란도 버터도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먼 훗날 맛있는 쿠키가 되려고 노력하다보면, 때로는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쿠키인턴십에서 배웠던 ‘협동’을 잊지 않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해  
‘맛있는 쿠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쿠키인턴십 여러분 함께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늘 5시 30분 퇴근 시간 지나서 퇴근하셨던(ㅠㅠ)  
양은진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2017 쿠키인턴십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_♡

# 2017년 드림센터 쿠키인턴십을 진행하며...

쿠키인턴십  
양은진

매주 수요일. 금요일 2시 30분이 되면 드림센터 4층으로 인생의 푸르른 봄날의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모두 열두 번의 수업동안에 4종류의 다양한 맛과 모양의 쿠키를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 쿠키를 반복해서 3번씩 배우게 되면 손이 여물어져 가고, 베이킹의 기본 지식들이 차츰 쌓이게 됩니다.

쿠키 만들기는 간단한 손 씻기로 시작해서 위생복장을 갖추고, 테이블을 정돈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쿠키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저울에 재어 계량하고, 밀가루를 체에 내리는 준비를 한 후에 쿠키반죽을 만들고 모양을 내 오븐에서 직접 구워봅니다.

수업은 2~3명의 아이들이 조를 꾸려서 협동하기도 하고, 혼자 힘으로 모든 과정을 책임져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아이들은 제비를 뽑아 1가지 종류의 쿠키를 어떠한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만들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과 과정을 평가하긴 하지만 어느덧 자라나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주 실수하고, 아주 가끔은 망치기도 합니다.

망치게 되면 기분 상하지만 그래도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쿠키니깐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이들은 그 실수들을 통해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정성을 기울이며 지난 실수를 피해갑니다.

실수에 관대했던 아이들도, 작은 실수에도 힘들어 했던 아이들도 반복되어지는 실수들과 반복되어지는 배움들을 통해 자신을 닮은 예쁘장한 쿠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작은 쿠키를 통해 아이들과 강사인 저는 인생을 조금은 배우는 것 같습니다.

12번의 수업이 꼭 12달의 짝 채워진 온전한 숫자 같기도 합니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이뤄진 12달은 소생하고, 싱그럽고, 알차게 여물어가고, 추수하기도 하지만 추운 겨울이 되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땅속 안에서 생명을 품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겨울이 지나면 푸르른 새싹이 다시 움트며 봄이 오지요.

저에게 쿠키인턴십 수업은 아이들에게 기다리는 것, 함께하는 것, 정성을 기울이는 것,

작은 성공을 가르쳐주는 수업이기에 보람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실수들과 실수들을 통해 배움이 이뤄진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쿠키는 조금 더 커지겠지만,

쿠키인턴십에서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멋진 꿈을 이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애들아! 쌤이야~

2017년 올해, 놀이터인턴십을 했던 너희들을 대상으로 수기집을 만들어 보려고 해~

쌤도 드림센터에서 여러 인턴십 중에 놀이터인턴십이라는 업무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놀이터는 너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놀이터를 덤석! 골랐단다. 지금 생각해보니 놀이터에서 너희들과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네~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울고 또 웃으며 사랑하고 위로하고 결국 어렵다고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낸 바로 그 공간이 놀이터라고 생각해.

놀이터에는 저 감정들 말고도 내가 모르는 너희들만의 더 많은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겠지?

놀이터 안에서 너희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반짝거리는 눈동자로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편의와 친절을, 또 우리의 놀이터를 부수거나 고장내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눈빛으로 돌변하는 너희들이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단다. 한편은 마치 자신의 가게(?)처럼 관리하고 있는 너희들을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ㅋㅋ

쌤은 우리 놀.인.탄.들은 쌤이 생각하기에 너무 착하고 배려심이 강한 친구들이라서 너희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그래서 생각한 매주 목요일 '놀인턴 정기회의!' 여기서만큼은 우리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은 것들 다~ 말하고, 회의할 때 누구도 빠지지 않고 의견을 다 얘기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놀인턴 정기회의를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너희들의 첫 작품! '카트라이더 게임대회!!!' 4월에 너무 감격스러웠고 자랑스러웠는데 나오는 조금 달랐던 너희들의 표정(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ㅋㅋㅋ) 너희들의 표정에 뭔가 아쉽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인지 결국 2회를 기획하고, 해내더니 3차를... 또 기획하고(이뎨 너희도 정말 힘들었지? ㅋㅋㅋ) 또 해내더라. 정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 놀인턴이야.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트러블도 가장 많았던 3차 게임대회 때, 너희들이 제대로 한 번 맞서 싸우고 트러블과 불화설(?)이 가장 많았지~

근데 쌤은 있잖아, 그거 다 너네가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희가 회의를 통해 하나된 의견을 이끌어내기 힘들었던 이유는 그만큼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반증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너희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쌤이 직접 나서서 회의내용을 바꾸거나 이끌어가지 않았어. 너희들이 싸우고 힘들어 했던 만큼 쌤도 마음이 아팠지만, 너희들이 머리 맞대고 노력으로 만들어질 게임대회에 쌤이 손가락만 엮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게임대회보다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쌤이 참치 못하고 개입해서 게임대회를 진행했다면,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가슴 아프게 상처까지 받아가며 회의했던 노력을 내가 뒤엎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쌤은 앞으로 놀이터를 관리하고 안내할 새로운 뉴페이스 놀인턴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야. 뉴페이스 놀인턴에게 너희들의 규율을 잘 지키고 전수해주길 바란다. 2017년 놀이터인턴을 했던 모두를 초대하고 싶어.

너희들과 놀이터에서 위에 말했던 모든 감정을 공유하고 싶고 또 울고 웃으며 내년 놀이터인턴십도 너희들과 잘 해보고 싶구나! 2018년에도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놀이터를 기대할게. 안녕~

# 전단지, 배달, 서빙...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역연계인턴십  
허선영

요즘 식당을 가고,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돈이 필요해서, 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대학 등록금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어서 등등...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아르바이트,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간혹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역연계인턴십을 시작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역연계인턴십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으로 면접을 지원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15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려움을 느끼거나,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친구들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어서 지역연계인턴십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드림센터를 찾아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처럼 인턴십 지원서를 작성하여 지원합니다. 지원한 친구들은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되면 2주 동안 사회로 나가기 전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2주 동안 서비스, 비즈니스 매너교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경제교육, 노동인권교육, 범죄예방교육, 건강한 밥상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기초적으로 필요한 인사하는 방법, 만나게 될 여러 상황 안에서 응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면접 때 대답하는 것도 익힙니다. 또한 자기의 생활 안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고, 주변 정리도 하고, 돈 관리하는 방법, 청소년 노동에 관련한 법 등에 배워보면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닌, 사회생활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부분을 배워 자립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줍니다.

2주의 시간이 지나면 성실히 참여한 친구들을 GS리테일, 한국맥도날드, 파리바게뜨, 송파구 경제협의회 등의 협약된 기업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이어나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찾아 지원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글자 그대로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작은 경험들이 앞으로 겪을 사회경험에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연계인턴십은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만 연결해서 일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닌 사회에 처

음 나가게 될 청소년 친구들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시간이 같은 관심사를 가진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의 대화의 장이 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격려해주는 시간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역연계인턴십을 진행하면서 친구들이 면접을 보러 와서 만날 때면, 그들이 지닌 다양한 사연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지원서, 면접에서 많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을 떠올리면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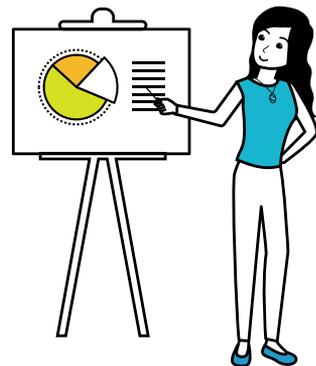
친구들을 만날 때면 즐겁게 교육을 들으며 유익한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원하는 곳으로 잘 연계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또한 교육시간에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도 예쁘지만, 처음 만나 어색했던 시간이 며칠만 지나면 서로 또래 친구들 이라서 그런지 금세 친해져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훈훈한 모습들도 눈에 많이 보여 제 마음도 같이 따뜻해집니다. 면접을 연결해줄 때는 같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동행하여 응원하기도 하고, 면접에 합격할 때는 같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여서 힘이 든다고 투정부리듯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인턴십 기간이 끝나고 꾸준히 계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사업장에서 칭찬의 피드백을 받고 센터에 와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겪었던 에피소드를 재잘재잘 말할 때, 실수한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면 저의 아르바이트 경험들과 공유하면서 친언니, 누나 같은 마음으로 듣고 같이 공감, 혹은 조언도 해주면서 이어나가는 순간들을 통해 같이 성장함을 느낍니다.

지역연계에 참여했던 친구들 모두 교육도 참여하고,  
아르바이트에 연결된 친구들은 사회 경험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것, 하고 싶은 이야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센터에 놀러오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즐겁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





# 드림인턴십 수료 청소년 수기



## < 2017년 드림인턴십 12기 수료 >

나를 성장시킨 드림인턴십 - 박효주  
인턴십이라는 기회를 잡으세요 - 서주영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바리스타 인턴십을 마치고 - 송의석  
드림카페로 오세요~ - 유선철  
드림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 이린  
인턴십은 힘들었지만... - 이상진  
막막해 보일지라도 일단 시작해보세요. - 최상훈

## < 2017년 드림인턴십 13기 수료 >

재도전을 통해 이뤄낸 드림인턴십 - 김재욱  
드림인턴십 추천합니다! - 박지호  
미래를 준비하게 해준 드림센터 - 이기혁  
미래를 준비하게 해준 드림센터 - 조희래

# 나를 성장시킨 드림인턴십

2017년 드림인턴십 12기 수료  
박효주

나는 서초구 서울 언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3월부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드림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다.

몇 년 전부터 커피를 좋아했고 학교에서 한번 만들어본 이후로 더 관심이 많아져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카페 알바도 많이 찾아봤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 작년 초에 우연히 학교에서 드림센터 공문을 보았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 여러 여건이 겹쳐져 신청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번 년도에는 꼭 하리라 다짐하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고 지금은 드림센터에 있는 드림카페라는 곳에서 실습생을 하고 있다.

인턴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주문을 하러 오셨다.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셔서 샷 뽑으려 했는데 영수증을 보니 21잔을 주문하셨다.

나는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멘붕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 5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사람이 많으니 더 헛갈렸다. 언니가 샷을 뽑고 린이가 얼음을 담고 내가 물을 따르고 또 다른 친구는 쟁반에 담가 가져다 드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다섯 잔이나 더 만들었다.

다른 일들도 더 많았지만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교육 받을 때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을 했었다.

교육 받을 때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서 그런지 커피 만들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었다.

그렇게 얻은 정보들이 실습 할 때 꽤나 유용하게 쓰였다. 내가 인턴십을 하면서 친구들과 가끔씩 서로 부딪히고 의견충돌이 있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같이 음료 만들고 서로 평가도 해줌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실수 했는지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점은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친해지고 인턴십을 하면서 사회성도 길렀다. 내가 일한 드림카페는 드림센터 안에 위치해 있다.

드림카페는 일명 '갑질'도 없고, 경력이 많은 언니오빠들이 하나하나 다 알려준다. 그리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분위기도 좋고 대체로 오순도순한 분위기이다. 알바하며 내가 직접 돈을 번다는 것은 나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것이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인턴십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드림센터, 드림인턴십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재밌었고 또 나를 발전시켜 주었다.

앞으로 센터를 이용하게 될 친구들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하면 힘든 일도 재밌어진다고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좋다고 말해주고 싶다.



# 인턴십이라는 기회를 잡으세요.

2017년 드림인턴십 12기 수료  
서주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서주영입니다. 현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 다니고 있으며 전에는 놀이터인턴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드림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는 제가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땀으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어 취직이 매우 힘들던 차에 드림센터에 놀러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드림인턴십에 대해 알려주셔서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인턴십 활동 중 제일 기억에 남았던 날은 신메뉴 개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카라멜 시럽과 바닐라 시럽을 섞어서 에스프레소에 또 섞고 그 위에 우유를 붓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고 그 위에 휘핑크림을 얹고 미니 웨하스로 장식을 하는 메뉴였습니다. 겉모습도 괜찮았지만 맛이 정말 최고여서 제일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교육 중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인사법과 이력서 쓰기였습니다. 이력서도 쓰는 방식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저에게는 너무 이로운 교육이었고, 인사법은 선생님이 인사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서 더 흥미로웠고, 머릿속에 딱 새겨졌습니다.

인턴십 교육 과정 중에는 힘든 것이 없었지만 아르바이트는 같이 일하는 분들과 서로 손발을 맞추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그것만 빼면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드림카페는 가격이 진짜 착하고 맛도 있고 공간도 넓적하고 밝은 분위기를 가진 멋진 카페입니다. 그리고 친절해요. 사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기보다는 경험과 경력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 벌고 나서 엄마에게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고 차비를 엄마 도움 없이 버니까 엄마도 덜 힘들고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의 저는 매우 게으른 백수였습니다. 뭐하나 하는 것도 매우 귀찮고 싫었습니다. 시간은 매우 느리게 갔고 저는 점점 더 게으른 백수가 되었습니다.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냈고 그냥 모든 것들이 너무 귀찮고 짜증났었습니다. 이런 나태하고 귀찮아하는 백수가 인턴십을 하고 50%정도 갱생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빨리 가고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갈 정도로 드림 카페에 빠졌습니다. 게으름과 귀찮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음료 만들어서 내드리는 시간이 느립니다. 그리고 짜증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화는 아직까지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처럼 조절이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성격이라서 변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요. 또 더 활발해지면서 조금 있던 우울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좀 더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했지요.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카페에서 일할 때 퇴근시간이 되면 진짜 퇴근하기 싫어서 5분만·10분만·하면서 더 버티다가 퇴근한 적도 있어요. 돈 말고 실력 향상과 경력을 생각하며 일하니까 너무 너무 재밌고 행복합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제 꿈을 키워나가는 매우 행복한 곳입니다. 드림센터에는 놀이터도 있어서 그 곳에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 곳이고, 친구와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예쁘고 착하세요. 인턴십은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경험은 매우 중요해요. 인턴십의 가장 좋은 점은 커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도 하고 그 분야에 도움이 되는 다른 교육도 받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요. 기회가 내 눈 앞에 있으면 반드시 잡으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요.

## 청소년드림센터에서 드림인턴십을 마치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송의석입니다.

동북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놀이터인턴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드림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는 돈을 모아서 160만 원인 가본포크 로드레이서, 즉 경기용 자전거 구매를 위해서이며 동기는 학교란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 어서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보기 위함입니다.

어느 인턴십을 하건 자신이 일하기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제대로 일을 마치지 않은 뒤에 끝내고 교대하면 다음 사람의 업무량이 엄청 많아지며 그 사람이 정말 미워집니다.

솔직히 약간 운이기는 한데 날마다 다르니까요 이건...

일하면서 즐거운 점은 바리스타가 사무직에 비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직보다 더 재미있고 실용적입니다. 나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 직업을 경험하며 바리스타라는 직업과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4층에 위치한 드림카페입니다.

저희 카페의 장점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할인을 해주며 메뉴 가격이 다른 카페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며 일을 할 때는 쉽게 적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조금의 노력입니다.

인턴십 전에는 지금보다 더 삶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쉽게 하지 못하는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 드림카페로 오세요~

2017년 드림인턴십 12기 수료  
유선철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인턴십 인턴으로 활동하고 배우고 있는 유선철입니다. 나이는 19살, 문정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드림인턴십에 지원한 동기는 바리스타 교육을 배우면서 커피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이 드림인턴십을 하는 인턴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드림인턴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인턴 친구들이 협동심을 발휘하여 열심히 자신의 꿈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턴들이 커피를 알고 배우고, 레시피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피를 시도하며 새로운 창작 커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인턴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항상 미소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는요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제조하면 손님들이 더욱 맛있게 드시고 드림카페를 많이 찾아 오실지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손님에 대한 친절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턴십 첫 날이 기억납니다. 처음에 인턴십을 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먼저 말을 걸고 시간이 점차 흐르고 흘러 인턴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인턴 분들의 행동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각자 마다의 재능, 성격, 특성, 좋아하는 점, 싫어하는 점을 많이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드림인턴십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웃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변을 살피면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드림인턴십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죽지 마세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항상 웃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드림인턴십으로 처음 활동하며 배우는 날은 여기서 뭐하는 곳이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커피의 대한 지식이 생기고, 자신이 어떻게 커피를 제조하면 손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선배들이 꾸지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선배가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드림 카페에서 근무를 하실 때 선배가 하시던 말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드림카페에 찾아오시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혹은 ‘어서 오세요. 드림 카페입니다.’ 하고 밝게 인사를 드리면 됩니다. 손님들은 커피를 느리게 나오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커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카페의 규칙이 있다면 근무시간에는 창고에 들어가서 쉬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드림인턴십 전에 쿠키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를 알게 된 계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과제빵으로 종로산업 정보학교를 지원했지만 결국 떨어지게 되서 마음이 섭섭해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을 때, 학교 선생님께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쿠키인턴십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작년 2016 3월 쿠키인턴십부터 지금의 드림인턴십까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일 하나조차 잘 되지 않고, 매우 실망감이 커져 좌절할 때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 좌절, 슬픔 등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드림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2017년 드림인턴십 12기 수료  
이린

안녕하세요. 드림인턴십에 참가했던 언남고등학교 이린입니다.

드림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친구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저는 경험이 부족하고, 대처능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조금 더 성장한 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쁜 일과를 소화하고 처음 해보는 일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알아야 할 것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한 덕분에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결과, 실수가 줄었고 알게 된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예시로 첫 실습 날 21개의 음료를 한 번에 주문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료 제작이었고 처음 받아보는 주문 접수여서 음료를 더 만들기도 하고 인턴들과 이동 경로가 겹치는 바람에 부딪혀 음료를 쏟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접수받은 음료를 다 준비하고 그 음료들을 전달해드렸을 때에는 일을 성공시켰다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전과 같은 실수도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화 중 실습을 나가기 직전 받았던 교육은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부터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시의 중요성들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은 인턴십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서울시립 청소년드림센터 덕분이었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진행되었던 드림인턴십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또는 인턴십 과정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경험이 되고, 어쩌면 희미했던 자신의 길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드림인턴십 과정뿐 아니라 다른 인턴십에 신청을 하여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사회를 미리 알아가면서 조금은 더 성장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턴십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인턴십은 힘들었지만...

2017년 드림인턴십 12기 수료  
이상진

저는 드림인턴십을 수료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꿈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하려고 했던 직업들은 나에게 맞는 것만 아니라 재능도 없었습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한 이러한 상황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가끔은 시간이 지나는 것도 두렵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커피를 배울 수 있는 드림센터를 알게 되었고 커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닌 돈을 벌고자 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 꽤 지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지만 저는 커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드림인턴십 이전에는 원래부터 커피를 좋아하긴 하였지만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드림인턴십 이전에도 커피가 좋아서 커피에 대한 공부를 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험은 아니어도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나에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또 한 번 더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생각이 드림인턴십에 신청한 계기가 되었고, 다시 커피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예상대로 저는 커피를 잘 만들지 못하였고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우면 배울수록 꿈에 대한 열정은 커져갔습니다. 또한 확실히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예전에 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자신감과 확신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경험은 매우 중요해요. 인턴십의 가장 좋은 점은 커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도 하고 그 분야에 도움이 되는 다른 교육도 받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요. 기회가 내 눈 앞에 있으면 반드시 잡으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요.



# 막막해 보일지라도 일단 시작해보세요.

2017년 드림인턴십 12기 수료  
최상훈

처음에는 아버지의 추천이 있었고, 이전에 자주 이용한 카페를 생각하며 필요한 생활비를 모으기 위하여, 이 인턴십이 좋은 경험과 역량이 되리라 생각하고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다.

놀이터인턴십, 드림인턴십 2개를 해보았지만 동료들과의 협력, 음료에 대한 기본 지식은 어디서든지 이용된다고 생각이 되므로 드림인턴십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5월 22일 아침에 단체 대량 주문으로 13잔의 음료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

드림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론을 통한 커피에 대한 기본 상식(고양이 똥커피, 커피벨트) 그리고 실습을 통한 커피의 다양한 세계(아메리카노가 단순히 쓴맛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변화하는 것), 손님, 동료를 포함해서 사람들 대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들이 익숙해지며 일을 할 때 상황마다의 판단 능력이 점점 향상되어 가는 것 같아 좋았다.

힘들었던 점은 역시 오래 서있다 보니 다리가 아프다는 점, 레시피 숙달이 되지 않았고, 오픈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내가 고쳐나가야만 하는 부분이다.

나에게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용돈을 스스로 만들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의미이다. 틈틈이 돈을 모아 여행도 다니고 싶다.

인턴십 전에는 그저 아무 노력 없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나날에 어쩔 수 없이 그저 만족했었다.

지금의 이 인턴십이 물론 어떤 것을 이루기에는 멀고 먼 시작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생애 첫 도전이라는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위한 목적이 생겼다는 것은 이후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험은 쌓이는 것이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곳이다.  
나에게 드림인턴십이란 지금은 막막할지도 모르는 여정의 시작점(드림)이다.  
앞으로 인턴십을 하는 분들에게 시작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 재도전을 통해 이뤄낸 드림인턴십

2017년 드림인턴십 13기 수료  
김재욱

저는 21살 김재욱입니다. 13기 드림인턴십을 수료했습니다.

그전에는 쿠키인턴십과 놀이터인턴십을 해봤습니다. 커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고 자격증을 공부해서 진로를 바리스타 쪽으로 하고 싶어서 드림인턴십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드림인턴십은 재도전입니다. 전에는 왜 인지 다른 인턴십할 때보다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낯선 사람들과 많은 인원들이 같이 배우는 거라서 부담이 되었고,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쉽게 긴장하는 성격이라 배우는 것이 즐겁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지원해서 또 했는데... 예전에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인턴십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은 바리스타 평가회 때 레시피를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 상태여서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쉬운 메뉴가 걸려서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경제수업이 제일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쓸 줄이나 알지 저금하는 방법이나 통장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경제수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요즘은 돈을 번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입니다.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 용돈을 받으면서 썼는데, 알바를 할 수 있다면 생활비를 내가 벌어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변화된 제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인턴십을 하기 전에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었습니다. 너무 할 일 없이 지내서 제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힘들면 쉽게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 점은 '힘들고 괴롭다고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처음에 인턴십을 시작했을 때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많이 힘들어서 그만 뒀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니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드림센터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당장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지만 드림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림인턴십을 통해 힘든 시간을 극복했고 열심히 해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일을 해보고 경험을 하고 싶을 때 드림센터를 방문해서 인턴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드림인턴십 추천합니다!

2017년 드림인턴십 13기 수료  
박지호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박지호 라고 합니다. 제가 수료한 인턴십은 드림인턴십 입니다.

드림인턴십에서는 카페에서 하는 일들의 기초를 배웁니다.

제가 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평소에 커피에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커피나 음료를 제조하고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입니다. 제가 인턴십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던 에피소드는 마지막에 봤던 평가였습니다.

마지막 평가에서 저는 카푸치노를 만들고 옮기다가 너무 떨렸던 나머지 수전증으로 인해 우유거품을 흘렸었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제가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턴십 교육은 역시나 스팀 연습이었습니다.

스팀 연습을 했을 때 동기들과 우유를 꽤 많이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드림인턴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있지만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평소에 접하기 힘든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머신을 직접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었고요.

제가 인턴십 교육을 끝나치고 인턴으로 일했던 곳은 드림카페 입니다. 드림카페에선 실제로 여러 음료들을 손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커피류, 스무디류, 티나 에이드류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빵도 구워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을 쌓는 기회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제가 언젠간 자립해서 살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증명한 것 같았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받은 뒤에는 직접 번 돈이라서 그런지 쓸 때도 더 기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안 하던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니 성격도 활발해지고 모든 일에 의지도 생겼습니다. 검정고시도 공부하여 합격을 하였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거의 없던 책임감이 약간이나마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일자리도 찾아주고 검정고시도 합격하게 도와준 고마운 곳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드림인턴십이란 청소년들에게 커피와 카페에서 할일을 배우게 해준 고마운 인턴십입니다.

앞으로 인턴십과 드림센터를 이용하게 될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많은 일에 참여할수록 여러분에게 이득은 있을지언정 손해는 없으니 꼭 인턴십에 참여할 것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드림센터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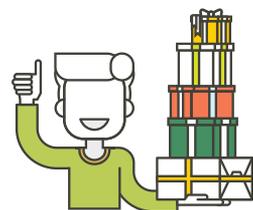


# 미래를 준비하게 해준 드림센터

2017년 드림인턴십 13기 수료  
이기혁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이기혁이라고 합니다. 이룸학교에 다니고 있고 드림인턴십을 수료하였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선생님이 소개해주시기도 했고, 저도 여러 가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커피 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커피포터필터가 두 개가 있었는  
데 하나가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커피포터필터 하나만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커피 제조와 참고정리입니다.  
일하는 데 필요한 가장 실질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림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커피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에 드림카페 실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참고 정리가 힘들었습니다.  
인턴십 전의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턴십을 하고 난 후 이제는 하기 싫었던 것도 책임감 있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면 내가 나중에 미래를 준비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싶습니다.  
드림인턴십은 저에게 커피에 관해서 알게 해주고 사람과 관계도 좋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경험해서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 미래를 준비하게 해준 드림센터

2017년 드림인턴십 13기 수료  
조희래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인턴십 수료생 조희래입니다.

이번 드림인턴십은 많은 걱정을 시작으로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시작하였습니다.

처번에 드림인턴십을 중간에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서 매우 두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드림인턴십은 잘 수료하여 수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이 저로서는 매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될 얼마나 큰일을 했다고 그렇게 대단하게 반응하느냐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료한 게 왜 대단하냐고 말하느냐면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포기과 포기를 일으켰던 순간들의 감정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둔 채로 인턴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도 정말 이번에 포기하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주위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다독여주는 친구와 선생님들이 계셔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 인턴십에서 처음에 커피 샷을 뽑았을 때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에 포기를 했었지만 다시 도전했을 때의 샷은 두근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마음속으로 숨죽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당연히 뽑을 수 있는 척을 해봤지요. 그 때를 생각하면 저는 매우 웃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배울수록 저의 실수하며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무거워져 갔고 긴장하기 시작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며 뒤로 빠져서 서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기본적인 샷 뽑기와 청소만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청소 잘 한다고 칭찬을 할 때면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카페의 일 중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긴 하지만, 내가 이 정도의 쉬운 일만 어울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못하지만 몰래 뒤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우유스팀을 해보고 당연히 실패했지만 계속 하면서 아주 가끔 성공할 때의 쾌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려워합니다. 저도 스팀을 배울 때 나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공하고 나서는 재미있는데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당연히 실패를 하면 또 주눅이 들지만 반복해서 시도한 뒤 성공하면 성취감이 느껴지는 뽀빠우스의 띠 같은 일입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배우는 데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 드림인턴십이나 다른 인턴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울 때 두려움으로 머리가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첫 날 오리엔테이션 때도 굉장히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먼저 대화를 걸다보니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더군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쯤에는 몇 명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지금도 신기한 일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중에 아니 언젠가는 잘하게 되겠죠.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드림인턴십 감사합니다.

# 드림인턴십 활동사진





# 쿠키인턴십 수료 청소년 수기



## < 2017년 쿠키인턴십 4기 수료 >

나를 키워준 쿠키인턴십 - 장운성

## < 2017년 쿠키인턴십 5기 수료 >

쿠키인턴십은 기름이 되어서 앞으로 나의 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이해미(가명)

'친구'를 알 수 있게 해 준 쿠키인턴십 - 문서영

학교를 그만 둔 나에게 또 다른 목표를 심어 준 쿠키인턴십 - 장은아

의미 없는 생활에서 재미를 찾게 해 준 쿠키인턴십 - 이재우

'뿌듯함' - 홍성민

## < 2017년 쿠키인턴십 6기 수료 >

쿠키인턴십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차인철

또 다른 학교에서의 새로운 공부 - 하승균

# 나를 키워준 쿠키인턴십

2017년 쿠키인턴십 4기 수료  
장운성

안녕하세요? 저는 이룸학교 지망생이자 쿠키인턴십 4기를 수료한 20살 장운성입니다. 저는 쿠키인턴십을 드림센터 활동자립팀 한지연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쿠키인턴십은 쿠키를 만들어서 드림센터 안에 있는 드림카페에 판매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쿠키를 만들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만든 쿠키를 다른 사람들이 사가다니...'라는 생각에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집에만 있었을 텐데, 드림센터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항상 돈을 벌고 싶었지만 밖에서는 사장님들이 채용을 해주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면접을 보고 난 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아르바이트 면접 보는 것이 두려워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제가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드림센터에서 받은 월급이 제 인생의 첫 월급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급을 받게 되면서 늘 부족했던 생활비가 두둑해졌습니다. 인턴십 전에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쓰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벌어서 쓰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또한 예전에는 쿠키를 전혀 만들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쿠키도 혼자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드림센터는 천국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방, 오븐,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쿠키인턴십은 정말 재밌습니다.

스스로 돈도 벌고 친구도 생기고 단체 카톡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해준 드림센터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쿠키인턴십은 기름이 되어서 앞으로 나의 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쿠키인턴십 5기 수료  
이해미(가명)

음 첫 번째로는 내 소개 정도, 그레 안녕 이 책을 보는 미래의 인간들이 그레 너 임마 난 건대부고의 다니는 여자 고3 이해미(가명)이라고 한다. 왜 가명을 쓰냐고 허(감탄사) 어차피 써도 난 나 몰라 아마도. 그레 다음은 인턴십 시작했던 계기, 동기라... 난 고3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먹고 자기만 했는데 점점 초초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잡생각이 없어질까 해서 신청하기도 했고 주목표는 돈 준다고 해서 신청했어 그레 너도 돈 필요하면 해보던가 그렇다고 해서 면접 때와 같은 곳에서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는 말고 그리고 거의 쌤이 물어보면 다른 거 얘기해 난 오늘 아침 마지막 날이라서 그냥 썼음. 응... (이거 쓰는 조건 보는 중) 기억의 남는 에피소드라...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의 날에 내가 쌤에게 짜증을 낸 것, 마지막 날이라서 더욱 잘 생각이 나네, 그레 그날 땅콩 버터 쿠키를 만들고 있었지... 날씨는 나쁘지 않았어... 아 모르겠고 아 그냥 나감 그리고 다시 돌아옴 떠나면 다음에 어색하게 싫었거든 그래서 꼭 아니 꼭 참고 갔지, 그리고 그날 조리실에 시계가 없다는 것을 말했는데 지금도 없을 걸. 그레 네 번째 내가 일하면서 가장 도움이 된 인턴십 교육. 솔직히, 내용은 쿠키굽는 거 제외 하고 다른 수업을 했다는 것 빼고 내용은 생각나지 않음, 그레 뭐가 했었지 음...

다음 하면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그레 다니면서 좋았던 점도 많이 있긴 했어. 근데 이걸 쓰는 게 오글거린다는 거지, 이거 하면서 사람 때문에 즐거웠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진짜 한 평생에 별난 인간 다 만났어. 덕후, 중2병 등 그 전에는 내가 별거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다른 의미로 말이지ㅎ)

그리고 난 애들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데 조금은 알고 가는 것도 생김 예를 들면 애들이 카톡을 오래하는 이유 같은 거 말이지, 그래서 요즘 말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덜 드는 듯함, 그레도 아직도 힘든 게 사람관계인 듯, 아직까지도 별로 친하지 않는 애들도 있으니 뭐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가고 사업장 자랑, 소개 이건 뭐 봐야 알지, 니가 일할 곳은 드림센터 4층 카페 뒤쪽 지나서 거기, 장소는 직접보고 결정 해 (넓음), 장소 말고 좋은 점은 다 좋아 쌤도 좋고 음 그리고 등... 그리고 나는 미술실이 더 좋았음, 여름 방학 동안 알바할 때가 있었거든(하던 건 포기 하긴 했지만)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거는 골든 타임 시간때가 좋았음(그 시간 때는 항상 좋지만), 나도 내 미술실 있으면 좋겠음. 자자 다음은(힘들어 죽겠다 하루에 힘 50% 이상은 앓았는데. 배고픔)

알바하면서 돈 번다는 것의 나의 의미, 나의 돈 욕심을 채울 수 있음 끝 다른 곳에서 일해도 이걸 변하지 않을 듯 인턴십 하기 전 내 모습과 후의 변화, 이걸 동영상 찍을 때랑 (니 놈들의 최고의 고비 ㅎㅎ) 질문이 똑같았어. 그냥 그 말을 곱게 재활용하겠음. 그러니까...(생각중)

내가 실패를 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쿠키를 만들면서 실패를 많이 해봐서 이제 실패해도 내성이 생겨 이제 실패하는 게 두렵지 않아지기도 했고 그 실패를 통해 필요한 노하우도 얻었다. 그리고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하는 것에 용기를 냈다는 게 아닐까 싶다.

이것들은 기름이 되어서 앞으로 엔진 돌릴 때 도움이 될 것 이 말 나와서 말인데 마지막 질문에 앞으로 인턴십 할 애들 해주고 싶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 강 이걸로 할게.

이건... 정말... 와 오글거려. 나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쿠키인턴십이란, ... 이걸 애들이 어떻게 썼을까? 좋게 쓰다면 위에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 그 정도 욱 더 이상 못씀 (작성자 주금) -끝-

# '친구'를 알 수 있게 해준 쿠키인턴십

안녕하세요. 고등학교3학년 진선여자고등학교를 다니는 쿠키인턴십 5기 문서영입니다.

제가 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는 제과제빵을 좋아하는데 학원 다니는 것은 솔직히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다니고 제과제빵자격증 책을 읽고 있다가 학교 위클래스 선생님이 너한테 잘 맞겠다고 소개 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테스트를 받던 날 제비뽑기를 해서 아메리칸 초코칩 쿠키, 오트밀 쿠키, 피넛버터쿠키(땅콩버터쿠키), 레몬마들렌 중 한 품목을 혼자서 끝까지 하는 것이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 쿠키를 만들었는데 혼자 하니까 처음에는 멘붕이다가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비즈니스 수업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수업에서 인사 하는 방법,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셔서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사회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어서 좋았습니다.

인턴십 하면서 좋은 점은 교육기간 한 달 동안 아메리칸 초코칩 쿠키, 오트밀 쿠키, 레몬마들렌, 피넛버터쿠키(땅콩버터쿠키)의 네 가지 품목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차차 잘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힘들었던 때는 아르바이트 할 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요일마다 같이 하는 애들이 다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또 애들이 만드는 속도가 다 달라서 천천히 하는 애들도 있고 빨리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속도 맞추면서 함께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드림카페 아르바이트를 자랑하자면,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때는 쉬고

분위기는 매우 밝고 활기차고 애들도 밝고 선생님도 밝게 잘 해줍니다.

쿠키 교육이나 알바 할 때는 다목적실에서 하는데 오븐이 있고, 거기에 밀가루, 초코칩, 베이킹 소다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도구는 알뜰주걱이나, 휘핑기, 체 등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자취방을 구하는 데 쓰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친구들과 한 번쯤은 성인되어서 여행 해외나 국내 여행이 가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생활을 해야 해서 자취를 할 계획입니다.

저축한 돈의 나머지는 용돈으로 쓸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주시긴 하는데 너무 적고 잘 안 주셔서 스스로 벌어서 쓰고 싶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 내 모습은 진짜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성격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매일매일 학교에 있는 것을 지루해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을 잘 사귀지도 못하고 많이 웃지도 않았죠.

인턴십을 하면서 학교 가는 것에도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친구도 조금 사귀었고 많이 웃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변화된 것은 제 성격과 생각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소심했었는데 활발해졌고 밝아지고 리더십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나에게 서울시립청소년센터란 '고마운 존재'입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쓸모없고 재미없어했는데 쿠키인턴십을 알고 난 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학교생활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쿠키인턴십은 저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친구들과 어색했는데 함께 인턴십을 하다 보니 친해지고

또 각자의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쿠키인턴십에서 친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기수 인턴십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쿠키를 만드는 것은 재미있지만 여러 명이 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설거지하면 제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건을 찾기 쉬우니까요.



## 나에게

## 또 다른 목표를 심어 준

## 쿠키인턴십

안녕하세요. 쿠키인턴십 5기 장은아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19살이며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정상 자퇴를 하여 현재 학교박청소년(자퇴생)입니다. 제가 쿠키인턴십을 알게 된 것은 자퇴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도 하며 공부도 하는 네이버 카페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들' 줄여서 '세학자' 카페를 통해서입니다.

쿠키인턴십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으며, 마침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라는 생각과 '나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시기라 저에겐 딱 맞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평소에 제빵에도 관심이 있어서 즐겁게 제빵도 하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되어 쿠키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짧지만은 않은 약 3개월간의 쿠키인턴십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실수라 그런지 에피소드라 하긴 뭐하지만 쿠키 품목 중 촉촉한 식감과 레몬 제스트를 넣어 새콤한 맛이 특징인 '마들렌'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마들렌'같은 경우는 준비된 틀에 찰주머니 안 반죽을 짜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 방식으로는 2번에 나눠 넣어서 반죽이 넘치지 않게 사용 했어야 하는데, 제 욕심이 과해 한 번에 넣었다가 큰코다친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진행 하면서 매 순간순간 교육이 저에겐 도움이 되었고 잘했던 날은 잘한대로 저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는 다짐을 심어 주어 도움이 되었고, 실수를 했던 날은 실수를 한 만큼 바로 피드백을 받아 '앞으로는 이런 점을 조심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심어주어서 저는 모든 교육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쿠키인턴십 교육과 아르바이트 기간 중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쿠키를 만들어 본다든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교육기간 중 만든 쿠키는 자신이 가져갈 수 있어 제 주변 지인한테 드렸을 때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고마움을 보고 '아 실제로 제빵을 공부해서 내가 빵집을 열면 항상 이런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쿠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져 이런 점이 전 좋았습니다.

힘들었던 점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협업하는 일입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각각, 개성도 각각이고 교육은 서로 조를 짜며 맞춰 가야 하다보니 서로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힘든 점보다 좋았던, 뿌듯했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쿠키인턴십 사업장을 소개 해드리자면 드림센터 4층 드림카페를 지나면 다목적실이 있는데 여기서 쿠키인턴십을 진행했었습니다.

간단한 소개이자 사랑을 해드리자면 재료와 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있고

필요한 도구들은 꼭 있는 도라에몽 주머니 같은 매력을 가진 사업장입니다!

또한 지금 말하는 것은 저 또한 정말 좋았는데요.

날씨가 유독 더웠던 이번 여름에 진행된 인턴십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진행이 되는 에어컨 빵빵한 사업장! 그리고 유익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들까지 사랑할 게 너무 많은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쿠키인턴십,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는 '발판'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늦둥이라 흔히들 말하듯 곱게 자라왔다고 할까요?

막내다 보니 유독 어머니의 걱정이 많으셨고 뭐든지 대신 해주시다 보니 제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고 저도 크게 노력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쿠키인턴십,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여 돈을 벌고 노력하니 훗날 제 스스로 살아 갈 '독립'을 위한 앞에서도 언급했던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키인턴십을 하기 전 제 모습은 앞에서도 조금 언급을 해드렸듯이 제 스스로 하는 일이 별로 없을 뿐더러 학교를 재학 중인 또래 아이들보다 시간낭비가 심한 의미 없는 생활을 보내기 일쑤였고 사회생활과 거리가 멀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졌고 사회성 또한 없었던 몸도 마음도 소극적, 비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쿠키인턴십을 하고 난 뒤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전보다는 더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쿠키를 만들며 쿠키를 향한 관심도도 전보다 높아졌고 취업교육, 경제교육 등등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 삶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목표도 서서히 뚜렷해졌으며 전과 달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조금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와 쿠키인턴십이란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삶에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저에게 또 다른 목표를 뚜렷하게 심어주며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삶에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준 '소중한 기관, 인턴십'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드림센터는 언제나 친구들을 위해 열려있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도 될까?'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혹시나 하고 있다면 망설임 없이 오셔도 될 정도로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고 따뜻하게 친구들을 대해 주십니다.

꼭 망설임 없이 당당히 오셔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미 없는 생활에서 재미를 찾게 해준 쿠키인턴십

2017년 쿠키인턴십 5기 수료  
이재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재우이고 현재 동북고등학교에 다니며 쿠키인턴십 5기를 수료했습니다.

고 1때 학교생활이 재미없을 때 학교 상담 선생님께서 제과제빵 수업을 듣게 해 주셨고  
그 당시 게임과 스마트폰을 제외한 다른 것에 처음으로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번 쿠키인턴십도 작년에 배웠던 제과제빵이 재미있었고 내가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받았던 돈들이 얼마나 힘들게 번 것인지 알 수 있었고  
돈 관리 또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쿠키를 만들면서 냉장고에 휴지시켜 놓았던 반죽을 꺼내 모양을 만드는데 손에 열이 많아서  
내가 과연 이 반죽을 만져도 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도 불안하긴 하지만 맨 처음 할 때보다는 요령이 생겨서 긴장이 덜 됩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마들렌 반죽 짜기와 뒷정리입니다.

마들렌 반죽을 찰 때 힘을 조금만 많이 주면 모양과 양이 제각각이 되어서 난감했었습니다.

뒷정리 역시 쿠키를 만들며 사용했던 물건들을 설거지하고 물기제거를 하고 흘리거나 떨어진 것들을  
치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항상 집, 학교, 게임, 핸드폰을 반복하며 의미 없는 반복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쿠키인턴십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잠 잘 시간에 내가 기술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내 인생에서 늘 반복되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끼워 넣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저에게 드림센터란 내 인생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 준 기관입니다. 또 쿠키인턴십은 나의 인생에 도전,  
나에게 재미를 가져다 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지루하거나 하루하루 의미 없는 생활을 보낸다고 생각되면 드림센터에서  
새로운 자신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인턴십 5기 홍성민입니다.

인턴십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원래 빵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학교 진로상담부장님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마카롱을 만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카롱 만들기가 힘들긴 했지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마카롱 속 크림 양 조절이 힘들었습니다.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저는 여러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드림센터 선생님이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외할머니 생신 때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저에게 ‘뿌듯함’입니다.

인턴십 하기 전에 저는 집에서 쿠키를 만들기는 했지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종류가 적어서 늘 비슷한 쿠키들만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얘기 하는 일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친해졌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쿠키 만드는 방법을 알아서 이제 집에서 더 다양한 쿠키를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해 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쿠키인턴십이란 여러 가지 쿠키를 만들 수 있게 도와 준 좋은 곳입니다.

앞으로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도구 위치를 알아두면

아르바이트 할 때 편안하니 모두들 도구 위치를 꼭 기억해 두세요!



# 쿠키인턴십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쿠키인턴십 6기 수료  
차인철

저는 아주중학교 차인철입니다.

쿠키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는 아는 형이 추천해줘서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스크 만들기 수업이었습니다. 만드는 것도 재미있고 맛도 좋습니다.

또 노동인권교육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것은 쿠키를 스스로 만들고 맛볼 수 있었고, 힘들었던 점은 레시피를 외울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쿠키인턴십은 쿠키를 만들고 팔거나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돈을 벌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저축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쿠키를 만들지 못했는데 배워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잘 만들어서 좋습니다.

저에게 청소년드림센터는 재미있고 신기한 곳입니다. 쿠키인턴십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쿠키를 태울 수도 있고, 쿠키의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쿠키인턴십은 오븐에 쿠키를 구울 때 시간만 확인하고 그쳐서는 안됩니다.

눈으로 직접 얼마나 구워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븐에 반죽을 넣은 후에는 계속 오븐을 보아야 합니다.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제가 직접 구운 쿠키를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계속해서 더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맛있는 쿠키를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학교에서의 새로운 공부

2017년 쿠키인턴십 6기 수료  
하승균

저는 제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평범한 남자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수업 외에 여러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쿠키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쿠키 수업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접 쿠키를 만들어보고 용돈도 벌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드림센터 쿠키인턴십의 자랑은 선생님들이 착하고 예쁘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인턴십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원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인턴십을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쿠키를 만들면서 세심함이나 청결 같은 부분에서 나의 성격이 부각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또 다른 학교이고, 쿠키인턴십은 새로운 공부입니다.  
앞으로 드림센터에서 인턴십을 하는 친구들과도 편안하게,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 쿠키인턴십 활동사진







# 놀이터인턴십 수료 청소년 수기



## < 2017년 놀이터인턴십 >

도전에 망설이지 마세요. - 이병호

놀이터에 놀러오세요~ - 차인철

놀이터인턴십이란? - 임수경

놀이터에서 쉬었다 가세요. - 송수아

놀이터인턴십 소감 - 김준안

# 도전에 망설이지 마세요.

2017년 놀이터인턴십  
이병호

저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3입니다.

저는 놀이터인턴십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친구가 인턴십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여 간단한 면접을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인턴십을 처음 했을 때는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물품관리를 하게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물품을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놀이터란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로 수집할 수 있고, 노래나 당구, 탁구, wii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센터 놀이터인턴십이란 유익한 아르바이트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물품을 관리하는 능력도 생기며 해보지 못한 경험 (이벤트 계획 및 실행)을 겪고, 또한 좋은 동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놀이터인턴십을 할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도전하는 것에 망설이지 마시고  
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더 유익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 놀이터에 놀러오세요~

2017년 놀이터인턴십  
차인철

저는 4월에 친구가 드림센터를 소개해줘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받은 곳은 5층 놀이터라는 곳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카트라이더 게임 대회도 한다고 해서 같이 카트라이더 게임 연습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인맥을 쌓고, 계속 해서 드림센터를 다니게 되었고 매일 놀러 가다 보니 드림센터가 익숙해졌습니다.

놀이터가 익숙해지니 자연스럽게 놀이터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놀이터인턴십 친구들과 카트라이더 대회를 열었을 때는 너무 힘들고 많이 싸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공해내서 이번에 할로윈파티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놀이터는 모든 분들이 회원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터인턴십을 하면서 토론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놀이터인턴십은 선생님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난 드림센터라는 곳을 지인이 알려주었어.

솔직히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고 그냥 보람 없이 시간만 보내면서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으니 일이나 하자하고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면접을 봤지만 떨어지는 게 일이었어.

왜냐고?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전단지 아르바이트가 내 경력의 다였지.

그런 나에게 지인이 소개해준 곳은 썩은 동아줄이라고 해도 잡고 싶었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돈을 준다니까 나에게겐 일석삼조였어.

배우는 것도 좋지만 경력이 되니까 다른 일을 해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기회였어.

인턴십을 하다 보니 꿈도 없고 희망, 미래도 없던 나에게 좋아하는 것이 생겼고 관련된 직업을 찾게 되고,

꿈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 꿈이 생기다 보니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지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었어.

놀이터인턴십은 사실 두 번째로 일하고 있어.

처음에는 박정규 선생님이 아닌 다른 쌤이 맡아 관리하실 때였고. 처음 했을 때로부터 몇 달이 지난 것인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 내가 좋아하던 쌤들은 떠나시고, 지나가다 자주 뵈었던 전부장님도 떠나시고,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쌤들이 오시고...

가장 많이 바뀐 곳은 놀이터인턴십인 것 같아

게임 대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할 대회와 축제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데 게임 대회 때 난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번에 하는 축제는 내가 직접 참가하게 되서 더 들떠있어.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화내고 짜증도 낸 것 같아. 마음 초조하기도 하고 잘 안되면 어찌지 라는 생각이 머리에 맴돌아서... 그래서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짜증나고 답답했어.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든 상황이 싫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더 좋아지고 있어.

글쓰다 보니 짜증나고 답답한 일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늘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야.

간혹 7~8살짜리 아이들이 오는데 정말 귀여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다 보니 별별 일들이 있지만 일하기는 정말 좋아.

내가 일하지 않을 땐 놀이터에서 노는데 노래방, 탁구장, 당구장, pc 오락이 있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어. 드림센터 놀이터에서 노는 것! 추천할게!!

# 놀이터에서 쉬었다 가세요.

2017년 놀이터인턴십  
송수아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놀이터인턴십은 놀이시설과 책보는 공간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잘 놀고 쉬어갈 수 있도록 맞이해주는 것입니다. 인턴들이 모여서 행사를 기획하고 함께 고민하고 맞춰나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놀이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로 개인 또는 단체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번호를 가입하신 뒤 기억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신 경우에는 성함을 말씀해주시면, 컴퓨터에 검색을 해서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쉬셔도 되고 함께 놀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놀이터인턴십을 하면서 카트라이더 게임 대회를 열기위해 회의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일이 있어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일하면서 작더라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자주 부딪히지만 맞춰 가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혼났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하다면 깨끗이 정리하고 당구장 탁구장 등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잘 관리하며 일해야 했는데 반성했습니다.

또한 회의하는 날에 손님이 많이 왔을 때,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들이 도와줘서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손님을 잘 대해주고 일을 착실히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드림센터 선생님들은 제가 모르는 것이나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손 내밀어 도와주고 친하게 잘 대해줘요.

제가 생각하는 놀이터는 심이 되어주는 나무그늘이기도 하고 누구나 놀다가 갈 수 있는 즐거운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센터 놀이터인턴십은 나 자신을 자라게 하며 실 곳이 되어주는 삶의 터전입니다.

앞으로 놀이터인턴십을 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누구나 처음은 있으니 하다보면

처음보다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맞춰가며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1달 정도 놀이터인턴십을 했던 20살 남자입니다.  
솔직히 영성하게 일을 배워서 띄엄띄엄 일한 식이었지만, 인턴십을 했으니 소감을 써봅니다.  
일단 계기를 써야겠네요. 처음에는 다른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던 이유는 아직 중학생인 친척동생도 스스로 돈을 번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게 계기였죠.  
자극이 되었습니다. 뭔가 열등감이 느껴져서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돈을 벌자는 마음이 어느 정도 섞인 채로 아르바이트를 생각해봤지만.  
제 성격상 사람을, 특히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은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가 드림센터 5층의 놀이터의 인턴으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도 거기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인턴십이 어땠느냐를 말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주변 환경이 저에게는 친숙했던 만큼 일하는 것이 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5층 놀이터의 관리입니다.  
청소하고, 놀이터 이용시간 체크하고, 놀이터에 오신 분들 문의 받고, 신규가입자 등록하고.  
선생님들이 지나갈 때 인사하고, 문 잠그고 퇴근하고...  
청소는 개인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적어도 저는)이라서 삭신이 쑤셨지만, 익숙해지니 평균 2시간  
인턴십에서 1시간은 청소를 하고 남은 1시간은 놀이터에서 몸을 쉬게 하면서 일을 하는 패턴이 완성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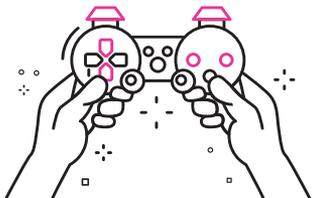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감인데요.

좋았어요.

그냥 심플하게. 좋았어요.

인턴십 하는 애들도 모르는 상대들이 많았지만 교대시간에 몇몇이랑은 대화도 해보고.  
딱히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고 제 감상을 간단히 축약하자면 '좋았다'예요.  
놀이터인턴십은 일을 한다는 것 외에도 제법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이상으로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짧았지만 쓰고 싶은 것은 다 썼다는 느낌이라서 상쾌하네요.

# 놀이더인턴십 활동사진





#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청소년 수기



## < 2017년 4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

나에게 길을 열어준 지역연계인턴십! - 안의정

## < 2017년 6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

돈을 번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 - 권상윤

즐거웠던 인턴십을 마치고 - 김관준

사회생활은 '성장'한다는 것이다. - 손광민

## < 2017년 8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

드림센터에서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 류준영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해준 지역연계인턴십 - 박유현

이제 시작인 사회인 최민수 화이팅! - 최민수

## < 2017년 11월 지역연계 인턴십 수료 >

지역연계인턴십을 추천합니다! - 유하은

지역연계인턴십에서 배운 것들! - 김주현

# 나에게 길을 열어준 지역연계인턴십!

2017년 4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안익정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부모님의 지원이 끊겨서 마지막 용돈 11만 원을 들고 덩그러니 남겨져있었습니다. 언니는 집세도 내야하고 등등 돈이 나갈 곳이 많아서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작년부터 구했는데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자신감도 더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정말 자퇴를 한 것이 잘한 결정인가 후회하면서 많이 울기도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돈도 없고 쓰레기 같이 산다고 생각되어 이걸 꼭 하고 만다하는 생각에 여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도 받고 아르바이트 연계도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와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요리도 배우고... 생각한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센터에서 이런 인턴십을 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걸 모두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연계인턴십 교육 때 '쿠션용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뭐 저 정도야 원래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GS리테일 본사로 연계되어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불편과 짜증을 내는 손님이 꽤 많더라구요. 배운 쿠션용어를 한껏 활용하여 거의 모든 손님과의 타협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용돈 받던 때랑은 다르게 처음 가져본 큰돈이라 저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80만원을 벌면 10~20만원은 저금, 10만원은 집 관리비, 6만원은 교통비 등 돈을 잘 쓰기 위해 계획도 세웠습니다. 되도록 인턴십에서 배운 내용대로 돈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보니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도 쉬워지고 많은 경험을 쌓아 4월보다 현재 더 나은 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저에게 고맙고 아르바이트를 연계해준 드림센터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인턴십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저 같은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길들을 많이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역연계인턴십을 수료한 19살 권상윤입니다.

제가 인턴십을 시작한 동기는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도중 관련된 글을 읽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신청했습니다.

인턴십 과정에서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요리 시간에 스테이크를 만들었는데 재료에서 요리선생님의 정성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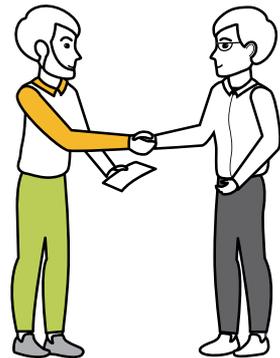
받았던 교육 중에서 좋았던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배울 때 선생님이 작은 질문 하나도 열심히 대답한 솜씨 성장 좋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 제 모습은 마치 시체와 같았습니다.

집에서 숨만 쉬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 즐거웠던 인턴십을 마치고

2017년 6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김관준

저는 부모님의 소개로 인턴십을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추천으로 시작되었지만 즐겁게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관께서 오셔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기회로 전에 혼자 지원했던 뷔페 아르바이트 이후 요리를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통해 요리를 해볼 경험과 동시에 사회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서 다른 친구, 동생, 형, 누나들이 좋은 경험을 겪고 한층 성장하고

사회에 빠르게 녹아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즐거운 인턴십이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생활은 '성장'한다는 것이다.

2017년 6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손광민

저는 마포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손광민입니다.

지역연계인턴십을 수료했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는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하면서 추천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턴십을 하면서 요리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투자, 통장관리,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를 배웠던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장'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인턴십에 참여하기 전에는 늘 집에서만 놀고, 공부해야하고 그래서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하면서 저는 밖으로 자주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과 조금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저에게 집처럼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인턴십을 하는 친구들끼리 더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드림센터에서 좋은 경험을 쌌습니다.

2017년 8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류준영

저는 16살 류준영입니다. 저는 은평씨앗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계인턴십에 신청을 하여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제가 지역연계인턴십을 시작한 이유는 예전부터 돈이라는 것을 벌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턴십에서 생각나는 것은 요리 시간과 경제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요리 시간에는 소세지빵을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함께 인턴십을 하는 친구들끼리 친하지 못했는데, 그 요리 수업에서는 모두가  
즐겁게 웃고 재미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또 경제 수업에서는 통장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도 정말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역연계인턴십의 모든 교육들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중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수업은 면접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와 이력서 쓰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쉽지 않은 교육이라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것은 여러 분야에서 지식을 얻은 것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인턴십을 했을 때 힘들었던 것은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과 수업을 받으니  
서먹서먹해서 숨쉬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은 저에게 큰 이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아르바이트가 저에게는 첫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인턴십에 참여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몸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친숙한 곳 같습니다.  
전에 드림센터에서 목공도 배우고 친구와 포켓볼을 하면서 재미있게 논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계인턴십은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정말 잘한 일이니 앞으로도 힘내라는 말입니다.

#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해준 지역연계인턴십

2017년 8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박유현

## 1. 지역연계인턴십 교육을 마치고

저는 이번 8월 지역연계인턴십에 참여하게 된 16살 박유현입니다. 저는 6월 말쯤 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태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이라도 제가 직접 구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고, 문자를 해도 모든 사업장으로 부터 고등학생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게 된 공고가 바로 서울 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하는 지역연계인턴십이었습니다. 마침 조건도 제게 '딱'이라고 생각하여 고민을 하다가 지원을 했고 현재 교육이 끝난 후, 그때의 저에게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정도로 배우는 것이 많아서 뿌듯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면접 팁, 범죄예방교육 등 여러 교육이 있었는데, 8일 동안 이루어진 모든 수업에서 무엇이 최고인지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제게는 다 재미있고 의미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이루어진 교육들이지만 그것들은 제가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교육이었습니다. 드림센터까지 오는데 집이 좀 먼 탓에 약 2시간가량 걸리지만 그 시간도 제겐 소중한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 곧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맥도날드에서 면접을 볼 것입니다. 배운 것들을 잘 응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원하는 교육을 이렇게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드림센터와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드림센터라는 좋은 곳을 알게 되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분명 다음에도 이 인턴십이 있겠죠?

다음 인턴십을 하게 될 분들도 저처럼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2.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느덧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첫 월급을 받았고, '맥도날드'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팀원으로 지낸지 한 달이 넘어갔네요. 맨 처음 드림센터에 발을 디딜 때만해도 제게 이런 미래가 찾아올 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드림센터의 교육은 2주간 짧은 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이 2주 안에 대체 뭘 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저는 제가 많이 바뀌기 위한 발돋움의 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드림센터에 낮가리고 어색하고 소심한 얼굴로 들어섰던 저는 교육을 받은 후 지금은 당당하고 큰 인사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드림센터와의 만남은 2017년에 제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만약 제가 드림센터를 알지 못했다면 전 지금 이 시간에도 허무하게 2017년을 날리고 있었겠죠? 2주 동안 자신감과 경제관념을 가지고 16살인 현재의 저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드림센터 선생님께 언제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출근을 할 때마다 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에 대해 너무 기쁩니다. 제가 6월에 우연히 드림센터를 접하게 되고 찾아갔을 때 두려움이 많았던 저를 친절하게 받아주신 선생님들, 특히 안지영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강의를 들려주신 모든 강사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청소년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짧은 시간으로 인한 지금의 결과를 써보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던 말, 그리고 교육을 받은 후 저의 후기 등이 다 드러난 것 같네요. 이제 또 저는 출근 날이 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금처럼 기분 좋게 일하며 차근차근 걸어 나가고 싶네요. 전 지금도, 앞으로도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짧은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 시작한 사회인 최민수 화이팅!

2017년 8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최민수

다른 또래 친구들은 수능준비에 바쁠 시기에 저는 1년제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나태하기 짝이 없는 집들이 생활만 수개월째였습니다.

이대로 나 자신을 뉘돌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작년에 했던 바리스타 인턴십이 생각나 올해에는 지역연계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카페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대체로 대학생이나, 최소 20세 이상만 구하는 경우가 많아 드림센터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들은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노동인권 수업도 정말 좋았고, 나에게 많이 부족한 면접과 자기소개서 쓰기 등의 수업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돈을 모아서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산다는 목표를 가지고 끈기로 아르바이트를 할 것입니다.

만약 청소년인데 알바를 구하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인턴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파리바게트에서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싶었던 처음 마음 때문에 조금 아쉬웠지만, 기회를 거르고 거르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지각을 자주 하는 저는 첫 출근 날 절대 늦게 갈 수 없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집에서 근무지까지의 도착 예정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입니다. 그보다 40분이나 일찍 출발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첫 날이라 힘들었던 거야’ 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월급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8월에 근무를 시작해서 8월분의 급여는 적었지만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몇 개월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9월 월급을 받고 10월 월급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한동안 집에서 쉬다가 이렇게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오니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느낌입니다.

첫 출근 때가 바로 어제인 것 같고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2개월 가까이 일했습니다.

첫 근무였던 8월 말에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힘들었지만 파리바게트 알바 덕분에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도 큰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연계인턴십을 추천합니다!

2017년 11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유하은

저는 언북중학교 3학년 유하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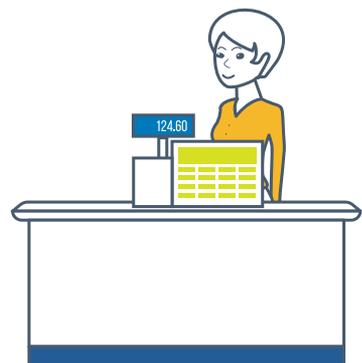
지역연계인턴십 교육을 받으면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하는데 우리들은 좋은 기회로 활동비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워서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임해야 할 자세까지,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용돈이 부족했었는데 지역연계인턴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라는 곳을 알고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연계인턴십에서 배운 것들!

2017년 11월 지역연계인턴십 수료  
김주현

저는 언북중학교 3학년 김주현입니다.

제가 처음 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는 친구의 추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연계인턴십과 놀이터인턴십을 신청했지만 놀이터인턴십이 떨어져서 지역연계인턴십만 하게 되었어요.

인턴십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서비스 관련 수업이었습니다.

첫 날에 첫인상 이미지에 관해서 배웠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과 꼭 필요한 것들, 도움이 되는 것 등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제가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고,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알바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인턴십을 한 후에는 통장 관리법이나 돈 관리법 같은 경제적인 부분도 알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 태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고민하지 말고 지역연계인턴십에 신청하세요.





# 지역연계인턴십 활동사진



# 답은 글

서울새마을치킨청주점운영팀 활동 지원팀 원원장 팀장님

## 멀리 가는 물

도종환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짜기를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추어 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식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올 한 해 인턴십을 수료한 친구들과의 만남을 돌아보며  
도종환 시인의 <멀리가는 물>이라는 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살아 갈 세상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누구나 그러하듯... 우리 친구들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도 있겠지만 고통과 슬픔도 존재하겠지요.  
그 어려움 중에서 멈춰버리고 안주해버린다면 또 포기해 버린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한 계단 성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저희 모든 선생님들과 드림센터의 모든 식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드림센터!' 여러분의 꿈이 시작되고 영글어 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늘 기쁜 미소와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해준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활동자립팀 팀장 위원석

# 드림 스토리

청소년인 나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 발행

2017년 12월 7일

## 펴낸곳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02.2051.8600  
[www.dreamcenter.or.kr](http://www.dreamcenter.or.kr)

## 편집 디자인 제작

(주)지디비주얼 아트디렉터박서영, 디자이너 방하현  
02.3446.3060  
[www.gdvisual.co.kr](http://www.gdvisual.co.kr)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 책에 관한 모든 법적권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 있습니다.

